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기관이 최대 지원 및 국비 지원 강화
- 기반시설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해 지자체간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 지속 검토
-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R&D 추진

정부는 3월 27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3.27일(수)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 위원(10명), 민간 위원(6명)
- 회의안건 :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안건2)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안건3)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
(안건4, 서면)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①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

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②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③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④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4년 45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여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4년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2.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

둘째, '23.5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실행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되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불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R&D 예산 '23년 9,976억원 → '24년 1조 1,011억원, 10.4%↑

< 안건3.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 >

셋째,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23년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하여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하였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하여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하였다. 산업부는 '24.4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24.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 안건4.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

넷째,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에 따라, '23.12월부터 '24.2월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의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자체 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금년 상반기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수도권(5) : 인천, 경기(수원, 고양, 성남, 시흥) . 비수도권(6) :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우향제 (044-200-2211)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동빈 (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호 (044-203-4215)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044-203-4272)
첨단산업 인력양성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4-203-4220)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혜숙 (044-203-4227)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상은 (044-203-6845)
	인재양성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규환 (044-203-6869)
바이오 특화단지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태희 (044-203-4290)
	바이오융합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혜원 (044-203-429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1. 특화단지 투자 인센티브 강화

- 국비·공공기관을 통한 특화단지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10조원 이상 규모), 다른 특화단지도 공공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 아직 기반시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특화단지는 기반시설 구축 계획 (실시설계)이 수립된 단지 순으로 '25년 예산부터 순차적 반영
- 특화단지 기반시설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기준 마련
 - 현재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을 선정해 총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원 한도로 지원 중
 - ⇒ ① 재정지원 건수 제한 (2건) 폐지 + ② 투자 규모·지역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 상향
-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기반 구축
 - 「첨단산업법」 개정 → 기반시설 관련 지자체간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4년)
- 투자 인센티브 추가 도입 검토
 -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 격화 → 現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첨단 투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 지속 검토
-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 (R&D) 본격 추진
 - 중복성·정책성 심의를 통해 9개 과제에 '24년 예산 45억원 배정
 - '24년에 이어 특화단지 내 생태계 구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R&D 예타 등 관련 절차 조기 이행 추진* ('24년)
 -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관련 절차 조기 이행 추진

2. 특화단지간 연계 확대

- [**공통**] 특화단지 추진단간 반기 1회 정기 간담회 추진 + 업종별 「특화단지 입주기업 협의체」 구성
 -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 (R&D)에 특화단지간 연계 R&D 지원방안 마련 추진 ('25년~)
- [**반도체**] 미니fab을 특화단지 실증인프라 구심점으로 활용
 - 미니fab 예타 신속 진행 후 '25년 예산부터 반영 추진 + 구미·부산에 조성 중인 소재·부품 실증인프라와 역할 분담
- [**이차전지**] 실증·인력양성 기반 공유를 통한 특화단지 연계
 -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및 전기차용 리튬전지 화재 안전 평가센터 본격 구축 ('24년) + 「배터리 아카데미」 공식 출범 ('24.5월)
-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내 디스플레이 제품군별 실증센터 집중 건설 (3,540억원) → 천안·아산 특화단지 실증인프라 전면 활용

3. 개별 특화단지 경쟁력 제고

① 용인·평택 특화단지

- 기흥 지구 개발부담금 감면 : 통근버스 정류장 지목 변경으로 개발부담금 발생 → 인력 확보 목적이므로, 감면 추진 ('24년, 용인시)
 - * 「첨단법」 제22조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을 규정
- 용인 특화단지 법정 주차대수 완화 : 용인시 조례를 통해 반도체 fab 주차장 설치기준을 350m² 당 1대 → 최소 525m² 당 1대로 완화
- 용인 일반산단 추가 용수 30.8만톤 이상 확보 : SK하이닉스 요구 물량 적정성, 시설계획 타당성 검토 후 수원·물량 확정 (환경부)

- 용인 일반산단 인근 도로 개선 : 남용인 IC 연결도로 (신설, '26.1Q → '25.12월), 보개원삼로 (확장, '25.4Q → '25.2Q) 조기 개통

② 구미 특화단지

- 폐수 공장의 5-2 국가산단 입주 제한* 해결 : 폐수 미발생 공장 위주 분양, 폐수 배출 공장 추가 입주는 유희부지를 활용해 해결
* 「물환경보전법」상 폐수시설 설치 제한 ('04년),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 ('10년)
- LG이노텍 이중 송전선로 구축 : 남구미 변전소 설비 교체 → 광평 - 구미 송전선로 복원 → LG이노텍 - 광평 변전소 연계 ('27년)
-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구미시, 1,300억원)
* 반도체 소부장 펀드 조성 ('24~'29년, 지방비 1,000억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 대출 이자 지원 ('24~'29년, 지방비 270억원)

③ 울산 특화단지

- 하이테크밸리 전력·도로 설비 국비 지원 : 전력 설비 37.5억원 (총사업비 25%), 산단 간선도로 28억원 (총사업비 50%) 지원 ('24~'25년)
- 원스톱 통합 금융 지원 : 최대 2.4%p 금리 우대, 보증료 지원 등 특화단지 투자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추진 (울산시)

④ 포항 특화단지

- 염수 처리 지하관로 지원 근거 마련 : 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 지원 대상에 이차전지 염수 처리 지하관로 포함 ('24.4월, 산업부 고시)
- 영일만 산단 전력 설비 조기 구축 : 신속 인허가, 수용성 제고 (포항시) + 실시계획 조기 신청 (한전) → 송전선로 완공 최대 단축
- 양·음극재 공장의 산단 입주 제한 해결 : 기업의 산단 입주 및 국내 투자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
- 이차전지 현장형·기술 인재 양성 (포항시, 36억원)

⑤ 새만금 특화단지

- 전력 설비 조기 구축 :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협조를 토대로 비응 #3 변전소 조기 준공 추진 ('28.12월 → '26.末)
- 고농도 염수 처리기준 명확화 : 공장 인근 주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24년 말까지 「염 증명 가이드라인」 신규 마련 (환경부)
-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전북도, 500억원)

⑥ 청주 특화단지

- LG에너지솔루션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검토 (산업부)
 - *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전력은 단일 수전 라인을 통해 공급 → 정전 위험 상당
- 학교 인접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간소화 : 교육환경평가를 받은 부지에 공장 건설시 재평가 면제 근거 마련 ('24.4월, 교육부)
-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촉진 펀드 조성 (210억원, 충북도)

⑦ 천안·아산 특화단지

- 개발허용량 확대 지원 :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아산시 개발 허용량 확대* 등 「오염총량 기본계획」 변경승인 추진 ('24.上, 환경부)
 -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만큼 개발허용량으로 전환 가능
- 특화단지 성장에 대비한 도로·전력 설비 확충 (천안·아산시)
 - * 아산·탕정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25년), 특화단지-신도심 연결도로 확장 ('24년), 북아산변전소·송전선로 건설 ('25년)
- 소부장 기업-수요기업 연계 강화
 - * 소부장 R&D 지원 ('24년, 국비 41억원) + 공정 개선, 전시회 지원 ('24년, 지방비 6억원)
- 비수도권으로의 첨단 인력 유치를 위한 신도시 개발
 - * 아산·탕정 제2신도시에 2.2만 가구 규모 아파트 공급 추진 ('29년)

- ◇ '24년 실행계획은 '23.5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3~'27)」의 '24년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수립
- 산업, 기재, 국토, 과기, 교육, 환경, 중기부, 금융위, 특허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지원 정책

1.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 첨단산업 민간투자 촉진

- 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 강화, 대규모 R&D 예타 면제 추진 등을 담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24.3월)
 - '24년 일몰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연장 검토*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분야 정책금융 지원 확대**
- * '24.1.15일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서 기한 연장 방침을 既 발표
** 첨단전략산업 정책금융 규모 : '23년 13조원 → '24년 14.7조원(대출 11.5조원, 보증 3.2조원)

2. 기술·인재 강국 도약 ⇒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첨단인재 양성·유치

- 산업경쟁력, 안보·공급망 등 고려, 첨단전략기술 추가 지정 추진, R&D 예산 확대('23년 9,976억원 → '24년 1조 1,011억원, 10.4% ↑)
 - 특성화대학 13개교, 특성화대학원 8개교 신규 지정* 및 글로벌 인재의 국내정주지원, 출입국 편의 등 지원방안 마련('24년, 산업부)
- * (대학) 반도체 10개, 배터리 3개, (대학원) 반도체배터리 각 3개,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

3.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 ⇒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확보

- 데이터 기반 위기징후 분석 등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24.4월~)
- 첨단산업의 ①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 비축 확대, ②핵심 공급망 보완을 위해 외투 및 유턴 보조금 예산 확대

4. 수출·통상 지원체계 구축 ⇒ 수출역량 및 경제안보 동시 강화

- 첨단전략산업 수출 1,800억불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 및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 강화

1. 추진경과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국무회의, '22.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1차 첨단위, '22.11월) 등 지원방안 마련
- '23.1월,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절차 마련, 첨단분야 대학 정원 기준 개선 등 특성화대학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마련('23.1.3.)

2. 주요 현황

- 특성화대학: '23년 반도체분야 8개 사업단 선정, 520억원 지원
→ '23년도 하반기 교육에 착수하여, '23년말까지 865명 교육
 - * (단독형) 수도권서울대, 성균관대, 비수도권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동반성장형) 명지대·호서대, 전북대·전남대,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 특성화대학원: '23년 반도체분야 3개교(성균관대, UNIST, KAIST) 선정, 90억원 투입 → 현재까지 261명 입학, 5년간 675명 양성 목표

3. '24년도 추진계획

- 특성화대학: 반도체^{추가} 10개, 이차전지^{신규} 3개 사업단 지정 예정
→ 반도체 8개('23년 지정) 및 신규 지정할 13개 사업단에 745억원 지원
 - * 일정(안) : '24년 지원사업 공고(~'24.4월) → 평가·선정(~6월) → 지정위원회 운영 및 고시(~7월) → 사업 운영(7월~)
- 특성화대학원: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추가}(3개교), 이차전지^{신규}(3개교), 디스플레이^{신규}(1개교), 바이오^{신규}(1개교) 지정 → 총 330억원 지원
 - * 일정(안) : '24년 지원사업 공고(~'24.3월) → 평가·선정(~4월) → 지정위원회 운영 및 고시(~5월) → 대학원 설치·운영(5월~)

4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1. 주요 경과

-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23.7월, 3차 첨단위)
 - * (반도체)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디스플레이) 충남 천안·아산 (이차전지)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계획 확정('23.12월 4차 첨단위) ⇒ 특화단지 공모('23.12월~'24.2월) ⇒ 특화단지 소위원회* 구성·운영('24.3월)
 - * 정부 4명(산업·기재·국토·환경부), 민간 8명(정책·지역·기술 전문가 등) 등 총 12명으로 구성

2. 공모 접수 결과 및 검토계획

- 수도권 5건, 비수도권 6건 등 총 11건 접수

< 공모 접수 결과 >

지역	접수 결과
수도권(5)	①인천, 경기*(②수원, ③고양, ④성남, ⑤시흥)
비수도권(6)	⑥충북, ⑦대전, ⑧강원, ⑨경북 ⑩전남, ⑪전북

* 경기도는 기초지자체별로 각각 제출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속도 경쟁을 고려하여, 단지별로 기술 초격차 실현 및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을 검토
 - 특화단지 소위원회에서 ①특화단지의 필요성·시급성, ②선도기업의 투자 계획, ③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④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⑤집적화 효과, ⑥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3. 향후 계획

- 특화단지 소위원회 : 특화단지 평가 및 지정 검토안 마련(3월말~5월초)
- 산업조정위 및 첨단위 : 특화단지 지정(안) 심의·의결(~'24.上)